

# 범여권 “尹 어게인 회귀... ‘내란의힘’당 됐다” 집중 포화

“장동혁 대표 환영할 국민 몇명이나 되겠냐” 비아냥  
“내란 반성도, 수괴와 단절 의지도 못 보여줬다” 직격  
박지원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SNS 비판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자 범여권에서 ‘국민의힘이 내란당임을 자처했다’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장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찬탈파’를 내부 총질자로 규정, 이들을 정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 분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의 선출을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극우 쌍둥이’의 결선 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학’의 노선을 편 장동혁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며 “‘극우의힘’을 넘어 ‘내란의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고 힐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번 국힘 전당대회는 전한길 면접 논란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전한길뿐인 전한길대회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반성없이 ‘윤어게인 전도사’에 잠식된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내란과 탄핵 반대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전한길의힘’에서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6차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장동혁 신임 대표가 26일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수 의원은 “한동훈도 경계한 최악의 후보(장동혁)가 국힘당 대표가 됐다. 한때 집권당이었던 제1야당을 극우가 점령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

날 SNS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해야 하지만, 제 양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 일일이 거명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는 한편의 막장극이었다”며 “천운 감별사 전한길 씨의 포효로 시작해 ‘윤 어게인’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둘 중 하나다”라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

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 당선으로 국민의힘 내 찬탈파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특히 극우 유투버 전한길 씨 등 ‘윤어게인’ 세력과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이 당을 장악한 만큼,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보여 온 ‘윤석열 탄핵 찬성’ 세력과의 동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한길 공천 확정, 한동훈 또 탈락!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그는 21일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한동훈 계열 모 인사를 만났는데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되면 자기들은 탈당한다더라”고 전했다. 또한 “윤석열, 김건희, 전한길하고 행동하는 김문수, 장동혁이 만약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분당이다”며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건전한 보수 세력이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버티는 김형석·이진숙... 민주 ‘자동사퇴’ 법개정 칼 뿜다

“국민적 분노 하늘 찔러...尹 정부 방송장악 부역자” 비판  
김병기, ‘알박기 인사 차단법’ 발의... “신속 통과 추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해 범여권이 칼을 빼 들었다. ‘즉각 사퇴’ 촉구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관장과 이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로 또 한 번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다”며 “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국회의원을 비난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한다. 임기도 다 채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퇴 요구와 분노에 대응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김형석 관장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 화살도 쏟아졌다.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송통신 위원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하고 있다”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로 정부 기관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때문”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 역시 “이진숙 방통위

원장은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제목의 장황한 글을 올리며 방송3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다”며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부역자다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통해 김 관장과 이 위원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광복은 일본에 승리한 연합군의 선물’ 발언을 한 김 관장을 ‘방언’ ‘요설’이란 용어를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與 “동맹공건” vs 野 “외교참사”

한·미정상회담 평가 극과 극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렸다. 정 부와 여당은 “오랜 동맹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나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함께 대응해, 한미동맹을 군사뿐만 아니라 조선업·제조업 등 경제 분야까지 확장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이디어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오랜 동맹의 역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양 정상은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공동 대응을 이어나가는 한편,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현대화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급 외교 참사’였다”며 혹평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병풍 외교’에 지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이 대통령은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은 실질적 성과가 사실상 전무한 정상회담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 治人治世

#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선미디어

황중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중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중택 칼럼 신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